

[로인협회순방]

휘남현조선족로인협회 리동희 회장

“우리 협회는 전 현 조선족의 유일한 통합 플랫폼”

통화시 휘남현 조양진 기차역 앞 역 전로에는 아담한 3층 건물이 있다. 이 건물 3층에 리동희(李东熙, 녀, 70세) 회장이 인솔하는 휘남현조선족로인협회의 150여방방매터 되는 활동실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휘남현당위 선전부 사업일군들의 안내하에 기자 일행이 이 활동실을 찾았는데 마침 협회 조양진분회 무용팀의 16명 로인들이 춤사위를 펼치고 있었다.

휘남현의 행정중심지인 조양진에서 리동희 회장은 전 현 근 300명 회원들의 따뜻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휘남현조선족로인협회는 현의 유일한 조선족 사회단체로서 전 현 조선족 대중들이 교류·협력·통합하는 유일한 플랫폼이다.”라고 리동희 회장은 말한다.

리동희 회장은 자금과 활동공간 부족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장진을 단합 인솔하여 협회 회원들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기고 품위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왔다. 협회는 리동희 회장의 지도 아래 ‘사랑나눔’과 ‘문화계승’의 진정된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

휘남현조선족로인협회는 1999년에 제1임 휘남현민족사무위원회 주임인 리원춘(리동희의 부친) 등 로세대 조선족 간부들의 주도하에 설립되었다. 협회는 설립 이후 줄곧 민족문화 계승과 로년층 복지에 힘써왔다.

2019년 리동희가 제5대 회장으로 협회의 중책을 떠맡았을 때 협회는 해이한 조직체제와 회원 리탈 등 심각한 운영 위기에 처해있었다. 퇴직된 휘남현민족문화관(현 휘남현소수민족문화관) 관장으로 풍부한 사업경험을 쌓아온 그는 과감한 조직 개편에 나섰다. 현 전역에 조양진내 3개 분회와 7개 농촌분회 등 10개 분회 체계를 구



▲ 리동희 회장(중간줄 좌 3), 오명수 감사(중간줄 우 3), 최영희 부회장(중간줄 좌 1) 등이 협회 무용팀과 함께.

축하고 300여명 조선족 로인들을 현로인협회라는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시켰다. 협회 운영은 총회가 전반을 이끌고 분회가 기반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리회장은 리사회의 구성원을 공개하고 연간 사업계획과 결산보고를 발표하며 활동 기록을 보존하는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리회장의 주도로 협회의 문화예술 활동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회원들은 년평균 14회 이상의 대형 공연을 통해 조선족의 우아함과 단결된 모습 및 풍부하고 다채로운 로후생활을 선보이면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

했다. 특히 2021년 휘남현당위 선전부와 현문화관광국에서 주최한 광장무대회에서 최고풍모상(最佳风采奖)을, 2022년 휘남현광장무대회에서 최고공연상(最佳表演奖)을, 2023년 휘남현광장무대에서는 최고활력상(最佳活力奖) 등을 휩쓸었는가 하면 같은 해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우수종목상(优秀节目奖)을 타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년평균 80회가 넘는 무대에 오르며 탐과 열정을 쏟은 회원들의 헌신이 담겨져있었다. 그들의 전통 춤과 노래는 조선족 문화계승의 생생한 증거이자 휘남현 정신문명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정기적으로 게이트볼, 장기, 화투, 탁구, 포커 등 다양한 활동으로 회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고 사회적 교류의 장을 마련해 사회 로년층의 핵심부문에 자리매김했다.

특히 몇년전 특수 시기에 리회장은 회원가족들의 강력한 버팀목으로 활약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귀국하지 못한 채 로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는 직접 장례를 주관하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유가족들의 감사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리회장은 회원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에도 힘썼다. 로인들을 노린 다단계판매나 전신사기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고 예

방교육을 강화해 ‘사기방화벽’을 구축했다.

또한 매년 설을 맞아 독거로인, 퇴역군인, 류재아동(留守儿童) 등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꾸준히 조직해왔다. 리회장은 다년간 휘남현민족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로인들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섰다.

2022년 리동희 회장, 오명수 전임 상무부회장 등의 아끼없는 노력으로 협회 운영의 최대 난제인 자금 부족과 전용 활동실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했다. 이어서 리동희 회장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자금 확보에 나섰다. 휘남현정부의 연간 지원금을 기본은 영비로 확보했고 회비 제도 개선으로 회비 체계를 정착시켰으며 광동성 동관시에서 전자공장을 운영하는 휘남현 출신 송창봉 사장의 3년 연속 후원 등 기업의 지원을 적극 유치했다.

협회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경조사 봉사’이다. 그중에서도 2000년에 설립된 장례봉사팀은 현재 4명의 남성 회원이 있는데 26년째 사망하는 회원이 생길 때마다 외국이나 외지에 나가있는 고인의 자식들을 대신하여 세심하고도 전업적인 일련의 전통 장례봉사를 제공하여 회원과 회원가족들의 한결같은 칭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그외에도 회원들의 진감잔치나 회원 자식들의 결혼식 등 경사에 초청을 받고 참가하여 축의금을 내고 축하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촬영, 공연 등 그 같은 봉사를 제공하고 받은 수고비를 협회 회비에 보태면서 운영자금을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수년간 현지 정부와 협상을 지속해온 결과 마침내 2022년 로인들에게 꼭 필요한 전용 활동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회원들은 “드디어 우리도 ‘집 없는’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정부의



▲ 휘남현조선족로인협회 리동희 회장

배려와 리동희 회장, 오명수 감사(전임 상무부회장) 등의 끈질긴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최근년간, 휘남현조선족로인협회는 주변 현, 시의 조선족로인협회들과의 친목행사로 활발히 진행하면서 상호 문화교류를 강화했어뿐더러 회원들을 인솔해 주변 도시 관광도 하며 로후생활을 더 풍부히 하고 있다. 작년에는 집안시조선족로인협회를 휘남현으로 초청하여 합동문예공연을 펼친 데 이어 집안시조선족로인협회와 함께 장백현조선족로인협회를 찾아 세계의 현금로인협회 회원들이 합동문예공연을 통해 친목을 돈독히 했다. 지난 5월 중순에는 집안시를 방문하여 집안시조선족로인협회와 문예공연을 통해 친목을 다졌을뿐더러 고구려유적 등 중조 변경 압록강변 등지를 유람하면서 좋은 추억을 쌓기도 했다. 5월 하순에는 매하구시조선족로인협회를 휘남현에 초청해 뜻깊은 친목행사를 가졌다.

“협회는 회원들의 것이다”, “남을 돕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는 리회장이 늘 입에 올리는 말이다 그의 삶의 철학이다. 화려한 무대와 리별의 장례식장을 오가며 사기피해 예방교육을 하고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등 그는 항상 회원들의 삶을 소중히 지켜왔고 그들의 행복한 로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로심조사했다. 소박하지만 남다른 그의 모습은 ‘로인들마다 할 일이 있고 즐거운 여생을 보내는’ 본보기로 기록되고 있다.

/오건 유경봉 정현관 기자



통화시 휘남현 소재지에서 103성급도로를 따라 5킬로미터 남짓 달리다 보면 길옆에 조선족 풍격이 다분한 민족촌이 보인다. 바로 조양진 신승촌이다.

민속촌 북쪽에 2층으로 된 300평방미터의 건물이 있는데 2013년 당시 촌로인협회의 회장을 맡은 오명수로인(75세)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적극 유치하여 30여만원을 투자해 건설한 촌로인협회 활동실이다.

신승촌로인협회는 2002년 평안진(현 조양진에 합병) 중학교 교원이었던 최도일 등 로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2020년 오명수 회장이 현로인협회 상무부회장으로 선거된 후 김옥련(75세)이 바통을 물려받고 4대 회장으로 되었다. 로인협회는 지난 24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단순한 마을 로인들의 모임을 넘어 신승촌의 주축이자 동네방네 소문나, 형제협회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행복한 로년생활의 본보기로 되고 있다.

경제적 자립과 조양진의 ‘마스코트’

로인협회 운영은 자금 지원을 떠날 수 없다. 신승촌조선족로인협회는 설립 초기부터 자금력이 탄탄하기로 주변 형제협회들에 이름이 났다. 현재 촌로인협회는 해마다 신승촌 촌민위원회로부터 8,000원씩 활동비를 꾸준히 지원받고 있으며 3개 생산대의 후원도 해마다 각각 1,000원씩 받고 있다. 게다가 외국이나 외지에 있는 회원 자녀들의 적극적인 지원 금액도 적지 않는데 명절이나 가정에 일이 있어서 고향마을에 돌아올 때마다 로인들을 식사대접하거나 후원금을 쾌척하곤 한다.

“지난해에는 자녀들의 후원금만 1



▲ 신승촌로인협회 3대 회장 오명수(왼쪽), 4대 회장 김옥련.

만 3,500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수천원이 모였습니다.”라고 김옥련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특히 올해는 토지 소유권, 사용권과 기타 권리에 대한 확인 및 확정 수속을 하러 촌의 대부분 젊은 촌민들이 외국이나 외지에서 고향마을에 돌아왔는데 촌에 남아있는 로인들의 도움에 힘입어 순조롭게 수속을 마쳤다. 그들은 고마움을 표하고저 촌로인협회에 후원금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처럼 충직한 활동 자금은 휘남현조선족로인협회 10개 분회 가운데서 누구 못지 않게 다양한 문예, 오락 활동 및 형제협회와의 친목활동 전가가 가능하게 했다.

충직한 활동 자금은 뛰어난 예술적 성과로 이어졌다. 신승촌조선족로인협회는 무용복, 상모, 팽과리, 장고 등 조선족 무용 장비도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2023년 휘남현에서 조직한 ‘광장무경연대회’에 신승촌조선족로인협회의 무용대가 조양진 대표로 출전, 32개 팀중 우수한 성적을 따내면서 실력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조양진에서 개최하는 중요한 행사에 빠지지 않고 초대될 정도로 실력과 인기를 인정받고 있다.

“조양진의 마스코트’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신승촌조선족로인협회의 무용대는 이제 조양진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휘남현을 넘어 기타 지역의 조선족로인협

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촌로인협회 전임 회장이며 현조선족로인협회 감사인 오명수가 말했다.

정부와 촌민을 잇는 교량

신승촌조선족로인협회는 촌민과 기층 정부를 이어주는 중요한 교량 뉴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42명의 회원이 있는데 대다수가 신승촌에서 오랜 세월 생활한 ‘신승촌의 살아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외국에서 돌아와서 협회에 가담한 60을 갓 넘긴 젊은 회원들도 있지요. 새로 부임한 촌, 진의 간부들은 항상 우리 로인협회를 먼저 찾아 촌의 상황을 파악합니다.”라고 김옥련 회장은 말했다. 현재 신승촌의 청장년 로동력 대부분이 외지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토지문제 등이 발생하면 로인협회가 그들과의 연락 창구가 되고 조정자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옥련 회장은 “이들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정도로 촌로인협회를 신뢰합니다.”라며 “협회는 ‘정부와 촌민들을

잇는 교량’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양진정부는 신승촌로인협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2023년 휘남현 ‘광장무대회’ 참가 비용 전액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공사 시 구마다 수도꼭지까지 무료로 교체해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신승촌로인협회도 역시 정부에서 제기하는 요구들을 성실히 수행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이러한 노력은 신승촌이 조용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 혜택을 누리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신승촌로인협회의 활발한 활동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신승촌이 민속촌으로 변모해 관광객이 늘어나는 데도 기여했으며 타지로 나간 고향 사람들의 귀향창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저는 다년간 남방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고향에 돌아와 불고기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승촌이 조선족민속촌으로 변모

하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점차 늘고 있어 저처럼 고향마을에 돌아오려는 촌민들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라고 신승촌 토배기인 ‘신승촌조선족 불고기집’ 사장 장성란(53세)은 말한다. 현재 그는 현소수민족문화관 무용팀 성원으로 매주 무용 연습에 땀을 흘리며 힘든 줄 모르고 있다.

행복한 로년의 보금자리

“우리 협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든 회원이 행복한 로년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외롭게 지내지 않고 함께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관광을 다니는 것이 ‘행복한 로년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김옥련 회장은 말한다.

한국 등지의 타지생활을 끝내고 고향마을로 돌아와 로인협회에 합류하는 60대 초반의 ‘젊은 회원’들도 늘고 있는 현재, 신승촌조선족로인협회는 고향을 지키고 나아가 고향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저 하는 이들의 소망을 실현하는 장으로 되고 있다.

얼마후에는 매하구시에 찾아가 매하구시 교서사회구역 아리랑예술단과 공부하고 다채로운 문예공연으로 친목행사를 진행한다면 촌로인협회 무용팀은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다.

신승촌조선족로인협회는 ‘충직한 활동 자금’, ‘탄탄한 조직력’, ‘강한 회원 응집력 및 활동력’이라는 3대 우세를 바탕으로 지난 24년 동안 형제협회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자녀 및 고향 청장년들의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회원들의 깊은 정과 헌신은 고향마을을 지키는 로인들이 어떻게 하면 존중받으면서 풍요롭고도 행복한 로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현관 유경봉 오건 기자

